

# 윤여정, 영국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오스카 굳히기

“고상한 체한다”는 영국인들이 인정해 기뻐” 재치있는 수상 소감 화제  
25일 미아카데미 시상식... 골드더비·베라이어티, 여우조연상 예측 1위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연기상 후보에 오른 배우 윤여정이 승기를 굳히고 있다.

윤여정은 지난 4일 미국배우조합상(SAG) 여우조연상에 이어 11일(현지시간) 영국아카데미 여우조연상까지 차지하며 오는 25일 열리는 아카데미에서 오스카 트로피를 들어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굳어졌다.

윤여정은 한국계 미국인 리 아이작 장 감독의 영화 ‘미나리’에서 1980년대 미국 남부 아칸소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할머니 ‘순자’ 역을 맡아 전형적이지 않은 할머니 연기로 호평받았다.

특히 이번 화상 소감에서 재치 있는 답변으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윤여정은 “모든 상의 의미가 있지만 이번에는 특히 고상한 체한다고 알려진 영국인들이 좋은 배우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미나리’는 지난해 미국 최대 독립영화 축제인 선댄스 영화제에서 대상과 관객상을 받으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미국 내 크고 작은 시상식과 영화제에서 100개가 넘는 상을 받았고, 이 중 20여 개가 연

정이 받은 연기상이다.

아카데미 전초전이라 불리는 골드글로브는 ‘미나리’를 외국어 영화로 분류하고, 윤여정을 후보에도 올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지난달 미국 방송영화비평가협회(BFCA)가 주관하는 크리티컬 초이스에서도 윤여정은 유력한 수상자로 꼽혔지만, 수상이 불발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이달 들어 SAG와 영국아카데미에서 잇달아 수상하며 한국 영화 102년 역사상 최초, 한국 배우 최초의 오스카 연기상 수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SAG는 미국배우조합이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조합 소속 배우는 상당수가 아카데미 회원과 겹친다. 아카데미 회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군이 배우이기도 해서 SAG의 수상 결과가 아카데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영국 아카데미상 역시 영국과 미국 영화 구분 없이 진행되는 만큼 미국 아카데미상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나리’의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를 정확하게 예측한 골드더비는 현재 윤여정을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로 꼽고 있으며, ‘더 퍼티’의 올리비아 콜먼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베라이어티 역시 윤여정을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로 꼽으며 “영국아카데미 수상자가 오스카에서 수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은 현지시간 오는 25일, 한국시간 26일 오전 열린다. ‘미나리’는 여우조연상 외에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조연상, 음악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라있다. /연합뉴스



윤여정

## 작품 다양성과 세대 소통 다 잡은 ‘나빌레라’

“따뜻한 위로·편안한 웃음·공감 전하는 드라마”

일흔 살 할아버지의 손끝과 발끝에 시선은 고정 한 채 그와 함께 숨을 멎었다가 내신다.

그 흔한 피도 칼도 등장하지 않지만 시청자들에게 몰입감을 주는 작품이 등장했다. tvN 월화드라마 ‘나빌레라’의 이야기다.

공통점이라고는 발레에 대한 열정뿐인 일흔 살 심덕출(박인환 분)과 스물셋 이채록(송강)의 성장을 그린 ‘나빌레라’는 자극적인 드라마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 요즘, 따뜻한 시선으로 인생 이야기를 풀어내며 잔잔한 감동을 준다.

살인과 범죄 등으로 점철된 장르극 사이에서 감동 코드를 내세운 이 작품은 시청률과 화제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쉬운 성적을 내고 있지만, 드라마 시장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회정 드라마평론가는 12일 “‘나빌레라’처럼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작품은 드라마의 균형을 지키면서 다양성의 한 축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휴먼드라마라는 장르적 특성을 바탕으로 세대 갈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풀어간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덕출은 인터넷에 자신의 대학원 논문 번역까지 떠맡기다 최종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준 레스토랑

점장을 향해 일침을 놓는다.

“저는요. 요즘 애들한테 해줄 말이 없어요. 미안해서요. 열심히 살면 된다고 가르쳤는데 이 세상 이 안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 자리 꿰차고 앉아있으니까. 응원도 못 해줄망정 밝지는 말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요!”

이런 덕출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조적 혹은 시혜적 태도가 아닌 청춘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앞날을 응원하는 지금 시대에 필요한 어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나빌레라’는 발레를 통해 세대 단절을 뛰어넘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소통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덕출과 채록 외에도 각각의 인물들이 가진 생각들을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풀어낸다는 점도 돋보인다.

은호(홍승희)의 새로운 꿈 찾기, 은정(김애란)의 경력단절 극복 과정에도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이유다.

공회정 평론가는 “편안하게 웃고 공감하며 인생을 생각해볼 수 있는 작품이 필요했다”며 “완벽하지 않더라도 꿈을 가진 인물들이 한 번쯤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오상진-김소영 부부, 올리브 ‘프리한 닥터’ MC 맡는다

채널 올리브는 오는 19일 밤 9시 처음 방송하는 건강·경제 정보쇼 ‘프리한 닥터’ 진행자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상진-김소영 부부를 낙점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사람이 함께 MC를 맡는 것은 처음이다.

‘프리한 닥터’는 건강을 위한 투자와 자산 관리 등 내용을 다루는 쇼 프로그램으로 ‘프리한19’와 ‘프리한마켓10’의 계보를 잇는다. 매주 월요일에는 ‘Monday’, ‘메디컬’ (Medical) 등을 콘셉트로 ‘프리한 닥터M’이 방송된다. 개그우먼 홍현희가 건강 MC로 합류해 건강 관리법, 난임 부부 이야기 등 생활 속 건강 전반에 대한 소재를 다룬다.

수요일에는 ‘Wednesday’, ‘윈’ (Won) 등을 모티프로 한 ‘프리한 닥터W’를 선보인다. 건강이



오상진(왼쪽)과 김소영 부부

자산이라는 주제로 개그맨 황제성이 경제 MC로 함께한다. 한편, 올리브는 다음 달 1일부터 채널 타깃을 확대해 중년들도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라이프 스토리 채널 ‘tvN 스토리(STORY)’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연합뉴스

## 블랙핑크 로제, 솔로곡으로 기네스 세계기록 2개 등재

블랙핑크 로제(사진)가 솔로 데뷔곡 ‘온 더 그라운드’ (On The Ground)로 2개의 기네스 세계 기록을 만들어냈다.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는 지난 9일(현지시간) 이 곡의 뮤직비디오가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K팝 솔로 가수의 유튜브 영상’으로 공인받았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기네스는 이 뮤직비디오가 공개 하루 만에 4160만뷰를 돌파해 사이의 ‘강남스타일’ (3600만 뷰) 기록을 약 8년 만에 갱신했다고 설명했다.

로제는 솔로와 그룹으로서 모두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 정상을 차지한 최초의 가수로도 기록됐다.



로제는 지난해 10월 블랙핑크 정규 1집 타이틀 곡 ‘리브식 걸즈’ (Lovesick Girls)로 이 차트 정상을 밟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온 더 그라운드’로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될 것이나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물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쯤되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사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